

# 마지막 비상구

(자살)

1937년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가 개통된 이래 지금까지 약 8백 명이 투신자살을 하여 그곳은 일약 자살(自殺)의 명소가 되었다. 사람들은 극단적인 상황에서 ‘마지막 비상구’로 자살을 떠올리게 된다. 과연 자살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정신 분석적으로 그것은 사랑과 미움이 뒤섞인 대상에게 향했던 적개심의 화살이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것이다. 자살은 “비록 두렵긴 해도 지금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막연한 도피의 의미, 정서적으로 심한 갈등이 얽혀 있는 친지들에게 “나 없이 살아봐라”는 복수의 의미, 그리고 “먼저 죽은 가족이나 친지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재회(再會)의 의미를 갖고 있다.

IMF시대가 시작하면서 많은 기업이 도산하고 그 여파로 중소기업의 사장이나 실직 가장의 자살이 잇따랐다. IMF를 졸업하고 난 후에도 사정은 별로 나아진 것이 없어 신용불량자가 3백 만 명 이상이 되는 지금 우리나라의 자살율은 세계 속에 우뚝 솟아올랐다. 보도에 의하면 전국에서 하루 평균 30여 명이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고 있다고 한다.

프랑스의 사회학자 ‘뒤르크하임(Durkheim)’에 의하면 이런 자살은 경제적 파산으로 발생하는 이른바 아노미(가치의 몰락)현상으로 그가 속한 사회로부터의 심각한 심리적 격리감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한다.

아닌 게 아니라 과거 경험상 경제의 위기는 필연적인 연쇄 자살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뒤르크하임은 자살을 개인의 병리 현상보다는 사회의 힘이 어떻게 개인에게 영향을 주는가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최근의 사회상을 보면 그 시각에 상당한 일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살을 감행하는 사람들은 주위의 친지들에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죽겠다”는 말을 흘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살은 충동적으로 결행해 버리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보통 수주에서 수개월 정도의 심사숙고와 결심의 과정을 밟아 가는데, 이 과정에서 은연중 구조 요청을 하게 된다. 때문에 잘 살펴보면 자살의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자살의 결심이 확고하게 자리 잡은 후에는 오히려 불안감이 없어지고 차분해지는 것을 볼 수도 있다.

흔히 자살은 심한 우울증 환자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사실과 매우 다르다. 자

살에 성공한 사람들 중 3분의 2는 과거에 우울증 등의 질병을 앓은 적이 없다는 조사도 있는 것을 보면 어떤 사람도 자살을 결심하거나 결행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정신과적으로 관심을 끄는 또 하나의 자살 유형이 있다.

그것은 만성 자살 또는 간접 자살이라고도 불리는 것으로, 예를 들면 당뇨병이나 고혈압 환자가 치료 지침을 잘 따르지 않아서 지속적인 악화를 반복하거나 간 경화증 환자가 배에 차 오른 복수로 숨을 헐떡거리면서도 술을 끊을 결심조차도 하지 않는 것이 그런 경우이다.

세상과 인생을 별 가치가 없고 무의미하게 보는 염세주의자(厭世主義者)들은 인생 그 자체를 결핵이나 악성종양 같은 만성 소모성 질환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평소 어두운 정서를 갖고 있으며 세상에 대해 비관적이고 흑백 논리를 편다. 그들은 패배 의식과 열등의식을 갖고 있으며, 때로 지나치게 도덕적이 되려고 노력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살의 유혹에 잘 빠지기도 한다.

또 자살이란 대화가 단절된 상대에게 ‘절규와도 같은’ 의사소통 수단으로 사용되는 수도 있으니, 억울하게 도둑으로 몰린 학생의 자살이나 상관으로부터 폭행당한 죄병의 자살은 심각한 심리적 고통으로부터의 해방과 동시에 박해자에게 회심의 복수전을 펼치는 것이다.

대개 그들은 원망과 동시에 “너를 용서한다”고 유서를 남기지만 그로 말미암아 박해자는 유형의 처벌은 물론이고 평생 동안 지울 수 없는 멍에를 안고 살아야 하는 무형의 형벌까지 받게 된다.

비록 자살의 성공률이 20분의 1정도라고는 하나 성공적인 자살 이후에 그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음을 알아야 한다.